맨튼의 독자에게 보내는 편지

토마스 맨턴이 독자에게 보내는 서신

마귀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큰 원한을 품고 있으며, 젊은이들의 타락과 가정의 의무의 전복만큼 그것을 알처럼 손쉽게 깨뜨릴 방법을 알지 못한다. 그는 성도들의 모임에서 공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의무를 공격하나; 이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엄숙한 명령과 임종의 부탁으로 너무나 잘 보호받고 있어서 그가 그것들을 완전히 전복시키고 무너뜨리기를 바랄 수 없다; 그러나 그는 가정의 의무들을 더 큰 성공으로 공격하니, 이는 그 제정이 그토록 엄숙하지 아니하고, 그 실천이 마땅히 그래야 할 만큼 진지하고 양심적으로 여겨지지 아니하며, 그 태만이 공적으로 주목받고 견책받기가 그토록 쉽지 않기 때문이다.

종교는 처음 가정 안에서 배태되었고, 바로 거기서 마귀는 그것을 짓밟으려 하니; 족장들의 가정은 그 당시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지신 모든 교회였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기에) 가인이 아담의 가정에서 나갔을 때, 그가 주의 얼굴을 떠나갔다고 말하는 것이다, 창세기 4:16.

당장을 위하여: 가정은 교회와 국가의 신학교이니; 만일 자녀들이 거기서 선한 원리를 갖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실패한다: 첫 번째 반죽에서의 결함은 두 번째에서 고쳐지지 않는다; 만일 젊은이들이 가정에서 잘못 교육받는다면, 그들은 교회와 국가에서도 잘못되게 나타나니; 거기가 첫 제작이요 결합이며, 그들의 미래의 삶이 거기서 취해지리라는 전조이다, 잠언 20:11. 가정의 훈육을 통하여 교회를 위한 직원들이 형성되니, 디모데전서 3:4,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등등; 거기서 사람들이 복종과 순종 안에서 길러진다. 사도행전 21:5에서 제자들이 그 아내와 자녀들과 더불어 바울을 배웅한 것이 주목되니; 그들의 자녀들이 언급되는 것은 아마도, 그 부모들이 자기 자신의 본과 바울에 대한 애정 어린 작별을 통하여, 그들을 교회의 목사들에 대한 존경과 경외의 형태로 기를 것임을 암시하려 함일 것이다.

이제 마귀는 이것이 뿌리를 치는 일격이며, 교회들의 계승을 막는 손쉬운 방법임을 안다: 만일 그가 가정들을 전복시킬 수 있다면, 다른 사회와 공동체들도 얼마간의 힘과 활력으로 오래 번성하거나 존속하지 못할 것이니; 이는 그것이 현재와 미래 모두를 위하여 공급받는 줄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태만한 목사들은 (마땅히) 그 직에서 쫓겨나는 반면, 태만한 가정의 주인들은 거의 나무랄 데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들은 세례에서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거기서 복음의 교리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주의 양육 안에서 그들을 기르겠다고 약속하나; 그들은 쉽게 약속하고, 쉽게 그것을 어기며; 자기 자녀들을 세상과 육신을 위하여 기르니, 비록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그들을 드렸음에도 그러하다.

하나님과의 이 언약 파기와, 자기 자녀들의 영혼을 마귀에게 배반하는 것은, 여기서든 앞으로든 그들 위에 무겁게 지워질 것이다. 그들은 오직 세상과 육신을 위하여 자녀를 낳고 가정을 유지하나; 자기에게 맡겨진 짐과, 자녀를 하나님을 위하여 기르고 가정을 거룩하게 된 사회로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 독자여, 나는 그대가 잉글랜드에서 경건의 능력이 쇠퇴함에 대한, 그리고 더욱 특별히는 젊은이들의 크나큰 부패에 대한 일반적인 불평을 모를 만큼 낯선 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나쁜 자녀와 나쁜 종들에 대하여 불평하는 것을 듣게 될 것이나; 실은 그 악의 근원은 조금 더 위에서 찾아야 하니: 나쁜 부모와 나쁜 교사가 나쁜 자녀와 나쁜 종을 만드는 것이며; 우리는 그들의 우둔함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육에 있어서의 우리 자신의 태만을 탓하여야 한다.

마귀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큰 원한을 품고 있으며, 젊은이들의 타락과 가정의 의무의 전복만큼 그것을 알처럼 손쉽게 깨뜨릴 방법을 알지 못한다. 그는 성도들의 모임에서 공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의무를 공격하나; 이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엄숙한 명령과 임종의 부탁으로 너무나 잘 보호받고 있어서 그가 그것들을 완전히 전복시키고 무너뜨리기를 바랄 수 없다; 그러나 그는 가정의 의무들을 더 큰 성공으로 공격하니, 이는 그 제정이 그토록 엄숙하지 아니하고, 그 실천이 마땅히 그래야 할 만큼 진지하고 양심적으로 여겨지지 아니하며, 그 태만이 공적으로 주목받고 견책받기가 그토록 쉽지 않기 때문이다.

종교는 처음 가정 안에서 배태되었고, 바로 거기서 마귀는 그것을 짓밟으려 하니; 족장들의 가정은 그 당시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지신 모든 교회였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기에) 가인이 아담의 가정에서 나갔을 때, 그가 주의 얼굴을 떠나갔다고 말하는 것이다, *창세기 4:16*.

당장을 위하여: 가정은 교회와 국가의 신학교이니; 만일 자녀들이 거기서 선한 원리를 갖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실패한다: 첫 번째 반죽에서의 결함은 두 번째에서 고쳐지지 않는다; 만일 젊은이들이 가정에서 잘못 교육받는다면, 그들은 교회와 국가에서도 잘못되게 나타나니; 거기가 첫 제작이요 결합이며, 그들의 미래의 삶이 거기서 취해지리라는 전조이다, *잠언 20:11*. 가정의 훈육을 통하여 교회를 위한 직원들이 형성되니, *디모데전서 3:4*,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등등; 거기서 사람들이 복종과 순종 안에서 길러진다. *사도행전 21:5*에서 제자들이 그 아내와 자녀들과 더불어 바울을 배웅한 것이 주목되니; 그들의 자녀들이 언급되는 것은 아마도, 그 부모들이 자기 자신의 본과 바울에 대한 애정 어린 작별을 통하여, 그들을 교회의 목사들에 대한 존경과 경외의 형태로 기를 것임을 암시하려 함일 것이다.

미래를 위하여: 어린 나무들의 번성하는 묘목장을 보고, 우리가 죽어 사라진 후에도 하나님께서 그분을 섬길 백성을 가지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는 것은 참으로 위안이 되는 일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으로 위안을 얻었으니, *시편 102:28*,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살고*, 등등.

이 모든 고려사항 위에서, 목사들과 가장들이, 젊은이들이 아직 유연하고 밀랍처럼 어떤 형태와 인상에도 능한 동안에, 하나님의 지식과 경외 안에서 그들을 교육하는 데 얼마나 조심하여야 하겠는가; 그리고 동시에 교리문답에 요약되어 양심의 눈앞에 놓인 대로, 우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원리들을 그들에게 심어 주어야 하겠는가! 참으로 기억의 밭에 심긴 이 진리의 씨앗들은, 다른 것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들에게 큰 제동과 고삐가 될 것이며, 마치 찬물을 부으면 끓는 냄비가 멈추듯이, 젊은이의 정욕과 격정의 열기를 얼마간 가라앉힐 것이다.

이 호소 후에, 나는 교리문답이라는 사역의 일과, 그것을 위한 합당한 도움으로서 성경 전체가 인쇄된 이 책의 유용성을 최대한 진지하게 그대에게 권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매우 학식 있고 경

건한 한 신학자의 사적인 편지를 만났는데, 그 안에서 이 문제가 탁월하게 다루어져 있고 나의 능력 안에 있으므로, 나는 감히 그 일부를 옮겨 적어 대중의 눈앞에 제시하고자 한다.

이제 마귀는 이것이 뿌리를 치는 일격이며, 교회들의 계승을 막는 손쉬운 방법임을 안다: 만일 그가 가정들을 전복시킬 수 있다면, 다른 사회와 공동체들도 얼마간의 힘과 활력으로 오래 번성하거나 존속하지 못할 것이니; 이는 그것이 현재와 미래 모두를 위하여 공급받는 줄기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교회 안에 있는 크나큰 혼란과 부패와 분열들을 애통히 여긴 후, 그 원인과 치유책을 이렇게 제시한다: 다른 것들 가운데, 이러한 악들의 주된 원인 하나는 가정의 다스리는 자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마땅히 다하여야 할 그 의무, 특별히 기독교의 교리를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의 크고 흔한 태만이다. 가정은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되어야 할 사회이니; 그것을 다스리는 자들은 목사들이 교회들의 영혼에 대하여 가진 것만큼이나 실제적인 그 안의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지닌다. 그러나, 아, 이것이 얼마나 적게 고려되고 유념되는가!

그러나 태만한 목사들은 (마땅히) 그 직에서 쫓겨나는 반면, 태만한 가정의 주인들은 거의 나무랄 데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들은 세례에서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거기서 복음의 교리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주의 양육 안에서 그들을 기르겠다고 약속하나; 그들은 쉽게 약속하고, 쉽게 그것을 어기며; 자기 자녀들을 세상과 육신을 위하여 기르니, 비록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그들을 드렸음에도 그러하다.

하나님과의 이 언약 파기와, 자기 자녀들의 영혼을 마귀에게 배반하는 것은, 여기서든 앞으로든 그들 위에 무겁게 지워질 것이다. 그들은 오직 세상과 육신을 위하여 자녀를 낳고 가정을 유지하나; 자기에게 맡겨진 짐과, 자녀를 하나님을 위하여 기르고 가정을 거룩하게 된 사회로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오, 만일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그것을 증진시키는 데 연합한다면,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달콤하고 성공적이겠는가! 설교자를 보내는 일에 그토록 애쓸 필요가 없을 것이니; 오히려 그들은 자기 몫의 일이 자기들에게 충분하며, 그것이 자기들이 종사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여성들은 이 의무에 유의하여야 하니; 이는 그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더 가까이 있고, 일찍부터 그들을 가르칠 빈번한 기회를 가지므로, 더 공적인 일에서 제한받는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주된 봉사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심할 바 없이, 많은 뛰어난 위정자들이 국가에 보내졌고, 많은 뛰어난 목사들이 교회에 보내졌으며, 많은 소중한 성도들이 하늘에 보내졌으니, 이는 거룩한 교육의 행복한 준비 덕분이었고, 어쩌면 교회에 쓸모없고 무익하다고 스스로 여겼던 한 여인 덕분이었을 것이다.

만일 부모들이 때에 맞게 시작하여, 영원한 생명의 큰 일들로 자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려 힘쓰고, 그리스도의 교리의 실체에 친숙하게 하며,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사랑을 발견할 때 교회의 목사들에게 데려가 시험받고 확증받고 교회의 다른 특권들에 받아들여지게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질서 있는 교회들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렇게 되면 한 목사가 이삼백 명 혹은 천 명의 가정 다스리는 자들의 일을 대신하여, 훨씬 전에 그들이 가르쳤어야 할 원리들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일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우리를 이해

할 준비가 교육으로 되어 있지 않은 그토록 많은 비참하고 무지한 영혼들에게 설교할 필요도 없을 것이며; 무지로 인하여 그토록 많은 이들을 거룩한 성찬에서 배제할 필요도 없을 것이니, 그들은 아직 그것을 느끼고 애통해할 은혜도, 성도들과 하나님의 권속의 동료 시민이 될 준비가 될 때까지 배우는 상태로 기다릴 재치와 인내도 갖지 못한 이들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늙은 자만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니, 어린아이 이상이면서도 어린아이보다 더 나쁘니; 어린아이의 무지를 가졌으면서도 어린아이의 가르칠 능력은 자란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참으로 자기 스승들 중 가장 지혜로운 자와 다툴 만큼 충분히 지혜롭다고 여기니, 이는 그들이 지혜로울 만큼 오래 살아왔고 그들의 지식의 증거가 그들의 늙은 무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서 배우고 우리의 가르침에 순종하기보다는, 교회의 특권들을 위하여 우리 얼굴에 대고 달아나려는 준비가 더 되어 있으니, 그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한다; 마치 저주받은 낚아채는 자들처럼, 자기 육신을 위하여 우리에게서 손가락을 튕기고, 우리 손에서 그것을 낚아채니; 우리가 줄 때까지 기다리는 어린아이들과는 다르다. 부모들이 그들을 그토록 무질서하게 길들여 놓아서, 목사들은 그 무질서한 이들 외에는 다룰 것이 없다.

그리고 이 처음에 잘 놓이지 않은 기초의 부족으로 인하여,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 자신도 대부분의 사람들만큼이나 무지하며, 많은 이들이, 특별히 더 젊은 이들 가운데, 그들에게 제시되는 거의 어떤 오류든 삼켜 버리고, 그것이 진지함과 그럴듯함을 갖추기만 하면 그들을 끌어당기는 어떤 분파적인 자들이든 따라간다. 이는, 슬프게도!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마음이 한 시간 안에 바뀔 수 있을지라도(그들이 신앙의 본질 이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한), 그럼에도 그들의 이해력은 그들을 안정시키고 속임수에 맞서 강하게 할 지식을 제공하는 데 시간과 근면함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러 이유와 다른 비슷한 많은 고려사항들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에게 이 필요한 일에 더욱 힘쓰고, 기독교의 본질에 더 친숙해지기를 간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하여(마음을 일깨우는 몇 가지 감동적인 논고들과 더불어) 나는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편찬한 것보다 더 그 용도에 합당한 작업을 알지 못하니; 그토록 경건하고 분별력 있는 신학자들의 회의는(불만을 품고 자만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온갖 쓰라린 말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잉글랜드가 결코 본 적이 없다고 나는 믿는다. 비록 그들이 전쟁의 소음이 사람들의 귀를 막고, 전쟁의 방종이 온갖 무례한 혀와 펜에 그들을 비난할 고삐를 풀어 주며, 그 전쟁의 추적과 사건들이 부분적으로 불만을 품은 사람들을 격분시켜 그들을 욕되게 함으로써 스스로를 욕되게 하던 그 재난의 시기에 고용되는 불행을 겪었지만; 나는 감히 말하건대, 만일 옛날, 공의회들이 권세와 명망을 가졌던 시절에, 이것이 장로들의 회의였던 것처럼 감독들의 공의회를 가졌더라면, 그 학식과 거룩함과 모든 사역적 재능으로 인한 그 명성은 큰 영예와 더불어 후대에 전해졌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가장이 먼저 이 작업을 스스로 잘 공부하고, 그다음 자기 자녀와 종들에게 그들 각각의 능력에 따라 가르치기를 바란다. 그리고 만일 그들이 한번 이 종교의 기초들을 이해한다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결코 할 수 없을 만큼, 다른 책들을 더 포괄적으로 읽고, 설교를 더 유익하게 들으며, 더 분별 있게 대화하고, 그리스도의 교리를 더 굳게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그들이 소교리문답을 읽고 배우게 하고, 그다음 대교리문답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고백서를 읽게

하라.

여기까지가 그(나는 그의 이름을 감추겠으나, 이 문제의 탁월함과 현재의 문체가 그것을 쉽게 드러낼 것이다)이니, 나는 그의 친밀함과 동의 없이 이를 출판하였으나, 바라건대 그의 뜻과 승인에 반하는 것은 아니기를 바란다.

더 이상 덧붙이지 않겠으니, 다만 나는 주의 일 안에서 그대의 종이라,

주의 일 안에서 그대의 종,

토마스 맨턴

© 2026 Westminster 1647 :: https://westminster1647.com/ko/correo